

한 편 강도가 부러워?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개역, 누가복음 23:39~43]

호강에 받혀 요강에...

우

리 주변을 둘러보면 부러운 일이 많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주위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조카 아이 하나가 어릴 때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닌 작은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걸작인 게 “나, 병원에 수술하고 며칠 있을 건데 너 위문 올 거야 안 올 거야?”라며 친구들에게 전부 확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가지!” “그러면 넌 뭘 사오고 넌 뭘 사오라”고 위문 올 것 뿐만 아니라 사올 선물까지 다 지정해놓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야길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애는 병문안 오면서 선물 가져오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다는 겁니다.

고 집사님께서 병원에 누워계실 때 아들 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오는 손님마다 가지고 온 음료수며 먹을 것들을 보고 “아빠 이것 다 우리 꺼야?” 하며 좋아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겨우 형광등 같아 끼우다가 넘어져서 다친 정도 가지고... 아이들이니 그렇지요. 저도 지난번에 야단 맞았습니다. “나도 병원에 누워서 오는 사람들 한번 맞아봤으면...” 하다가 헛소리 한다고 집사님들께 야단 맞았습니다. 어떻게 집사들이 강도사를 야단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도 쯤가요? 이런 예가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힘든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나도 사표 쓰고 집에서 실컷 한번 놀아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노는 사람이 그 말 들으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상급학교 진학만 하면 엄마 아빠 안 계시는 곳에 가서 자취해보는 것이 소원인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아이들을 정말 부러워합니다. 아마 한 달만 지나보면 눈에서 눈물이 쭉 빠질 것입니다. 잔소리는 좀 들어도 부모 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아이가 부럽고 집에서 놀고먹는 사람이 부럽고 부모 없이 혼자서 자취하는 아이가 부러워서 이런 소리 하는 경우에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호강에 받혀서 요강에 똥 썩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해서 나이 드신 분들께 물어봤더니 얼마나 애를 호강스럽게 키워왔으면 밖에 있는 화장실에 안 가고 방에 앉아서 요강에 똥 일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요강은 작은 일만 보는 곳인데... 철없는 짓이지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시집을 빨리 갔더랍니다. 그런데 부모님 잔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신랑 잔소리더랍니다. 부모님 잔소리는 조금 하면 끝이 나는데 신랑 잔소리는 신랑이 바뀌기 전에는 끝이 나지 않으니 말입니다. 부모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시집간다는 소리도 호강에 받혀서 하는 소리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진짜 호강에 받힌 소리를 하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한편 강도가 부럽답니다. 그야말로 죽기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 하옵소서’ 바로 그 시간에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천국 간 사람 말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정말 호강에 받혀서 하는 소리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것이 왜 그렇게 호강에 받히는 소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신인가 고집인가?

본문에 보니 행악자가 두 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조롱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그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다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 함께 못 박혔던 이 행악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몇 시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뉘그러게 깨달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범상한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한 사람은 마음을 돌이켰고 때가 늦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회심한 것 아닐까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강도라고 해도 다 같은 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고 마음이 돌아서는 강도도 있지만 정말 초지일관, 늘 푸른 나무처럼 꺾임도 하지 않는 강도도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 곁에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요동하지 않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지만 우리 주변에 그렇게 변함없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심지 굳은 한 사람이 며칠 전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대도라고 불렀던 ‘조세형’이요. 그 분이 언제 적 도둑입니까? 새사람이 됐고 심지어 목회까지 했습니다. 일본 가서 그러더니 어저께 또 그랬다고 하네요. 남의 물건만 보면 손대고 싶은 그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초지일관도 그 정도면, 처음 세웠던 뜻을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꺾임도 없고 끝까지 예수를 비난하고 ‘그대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라면 너도 내려가고 나도 내려 보라’고 하면서 이빨만 부득부득 갈던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한쪽 편에 있는 이 강도는 우리의 관심 밖입니다. 아무리 신념이 있고 투철하다고 해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생각하지 않는, 지혜 없는 소신은 터무니없는 고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할 만한 지혜가 없으면 소신이라는 것도 고집이요 아집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와 별 관계가 없으므로 다른 편의 변한 강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강도짓을 하며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바뀐 사람과 바뀌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지만 마음이 변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갑니다.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로 나왔고 어떤 이유로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뒤바뀌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놀라워하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된 것이 감사하지만 그러면서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하늘나라로 갔던 그 강도를 바라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1. 하나님의 선택은 확신하는 자

마음 변한 그 강도를 보고 부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엔 첫째로 선택은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자기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든 난 천국에 간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으면서도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는 이 자세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달려서 이만 같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간 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엄청난 행복이고 잘 하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선택받지 않은 모양?

그러나 이렇게 좋은 믿음을 소유했지만 '선택'이라는 용어를 쓸 때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표현할 때만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놀고 농땡이 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난 천국 간다."고 할 때는 이 단어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섭섭하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확신과 그에 따른 감사를 표현할 때 사용해야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해서 지칠 때 무엇이랴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닌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더라도 그럴 땐 절대 선택이란 용어를 쓰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쓰라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절대 쓰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몹시 슬프게 하는 말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먹이고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참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다고 칩시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아!"라고 할 때는 참 좋은 말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감격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고치고 하라는 공부하는 안 하고 늘 말썽만 치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찌했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낳은 자식인 걸!" 이런 표현은 부모님을 굉장히 섭섭하게 하는 말입니다. '날 어찌했어'라는 그 말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비유컨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이 관계를 잘 표현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지체롭지 못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령 다 큰 자녀들이 생활비를 좀 보낼 법도 한데 한 푼도 안 보태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 노후에 편안하게 사시려고 우리 공부시킨 것은 아니지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그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말은 맞죠? "그래! 내가 노년에 너희 덕 보려고 그렇게 고생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할런지는 모르지만 가슴은 찢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한다면 방금 말한 이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선택이란 용어는 감사할 때, 감격할 때 써야지 사고치고 땡땡이치면서 그 말을 쓰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섭섭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편 강도가 부럽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동안 내가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저 강도처럼 그 날 한마디 잘 하고 천국 가는 건데..." 예수 믿는 자로서 행한 많은 일들이 힘들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고생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안타까운 성도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겪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세요? "아이고, 부활절, 사순절 힘들어 죽을 뻔했다. 내일부터 다리 쭉 뻗고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감격스럽고 기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린 가끔 바보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인지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행사나 이런 일에만 시선을 돌리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 그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동과 그 감격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니 이 강도처럼 편안하게 세상 재미도 누리다가 죽기 직전에 '믿습시다, 아멘' 하고 바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2. 선택에 대한 감격은 없는 자

왕들이 놀라는데

지난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는 것이 세상의 열왕들이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들은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고 했던 그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의 열왕들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는 덤덤하게 듣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한 감격이 우리를 평생 지배해야 합니다. 그 감격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것을 드리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자식을 키우면서라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반성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한 번도 누구를 제대로 사랑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애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애인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없이 즐겁고 기쁘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이런 즐거움이겠구나’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엔 ‘내 입보다 누구 입...?’ 하시면 자식만 하지 말고 남편도 나오고 아내도 나오고 부모님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끔찍하게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흔하지 않아 조금 불행합니다만 옛날 우리 때는 선생님이 심부름 하나 안 시키나 눈 반짝이며 기다립니다. 그러다 시키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 그런 점을 보기 어려워서...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시험을 치고 난 후에 성적이 나쁘게 나와서 속상해서 울어요. ‘우리 엄마한테 죽었구나!’ ‘시험 잘 치면 엄마가 선물 사준다고 했는데 선물 날아갔구나!’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지만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보다 좀 나은 것은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난 내 머리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 머리가 왜 이 모양이야?’ 자신에 대한 실망이죠. 가장 좋은 답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알아요.

선생님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학생이 공부 잘 하는 학생입니다. 그런 학생은 저절로 공부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야 예쁘게 자랄 텐데... 요즘은 이런 아이들을 보기 어려워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 보기가 미안해서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아이는 참 아름답게 크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심부름이라도 시키주면 그렇게 반갑고 이를 한번 불려주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시험을 잘 못 쳤을 경우 선생님 보기가 마음 아픈 아이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 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종 노릇이 얼마나 재미있다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진정으로 감격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종된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스스로 종된 이야기가 성경 외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때가 되면 종을 다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 때가 되었고 먹고 살 것들을 다 챙겨서 주는데도 나가지 않고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까? ‘주인을 사랑하는 종’도 답이지만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그 주인에게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는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주인이 있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좋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기를 기꺼이 소망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스스로 종 된 자의 행복을 이 땅에서 맛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종노릇 하는 부모님들 참 많으시죠. 빠 빠지게 일하면서도 사실은 행복합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내에게 종노릇하고 스스로 남편에게 종노릇 하는 부부는 이 땅에서도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부부입니다. 그렇

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종 되기를 결코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이 강도가 부럽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전부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도 바울은 남에게 그럴 듯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왕족과 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게 되기를 바라나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고 자기를 불러주셨음에 대한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왕족과 귀족들 앞에 서서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도대체 느끼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손해 되는 일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진 비난을 받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큰 공입니까? 유일한 소원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두 번 친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40년 동안 그렇게도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끌고 무사히 가나안 땅 직전까지 왔는데 화 한번 낸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만 모세는 군말없이 순종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억울해 보이는 것 같지만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일주일간 금식하며 눈물뿌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정하시게도 그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신하들이 도저히 말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를 보고 다윗이 눈치를 채고 아이가 죽었다고 물었습니다. 죽었다고 하자 다윗이 눈물을 거두고 들고 일어나서 “상 차려서 밥 먹자!”고 합니다. 신하들이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렇게 울고불고 하던 분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훌훌 털고 일어나서 “상 차려라 밥 먹자!”고 하면서 깨끗이 몸단장하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다윗의 답변은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는 내가 간절히 매어달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 줄 모르잖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고 이왕에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으니 내가 하나님께 더 매어달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식의 죽음조차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밥을 먹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밥이 넘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감격을 누리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3. 세상에 미련이 더 많은 자

일회용도 필요한 것이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편 강도가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하고 이 땅의 것들을 잘 이용하고 써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합니다. 다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되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놓아야 할 때는 깨끗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너무 큰 미련을 두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불쌍해 보이나요? 때론 부러워 보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타락했고 너무나 음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세상이 음란하냐고 물으면 우리가 말하는 음란이란 것은 그 사람들에게겐 풍유고 호탕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써야 할 때가 많아서 아끼고 절제합니다. 그러다보니 좀생이란 소리도 듣고

조막손이란 소리도 들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쓰고 싶을 때 평평 씹니다. 하룻밤 술값으로 수십만원 날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고 노름판에 가면 수백만원도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참 통이 커 보입니다. 남을 돕는 데는 인색해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평평 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는 별별 떨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평평 쓸 수 있는 것은 통이 큰 것이 아니라 방탕한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대로 다 하고, 쓰고 싶은대로 다 쓰고 사는 모습이 때로는 부러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면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매력적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이 감격이 흐려지면 반대로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해서 그렇게 살면 그것이 올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아내가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뵈 수 있을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 모두 올무입니다. 남의 남편이 멋있어 보이고 우리 집 아이보다 남의 집 아이가 더 잘나 보이는 것 모두가 올무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 내 배필이 내게는 가장 알맞은 분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은 시시해 보이고 남의 것이 자꾸 크게 보이면 “아, 올무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연극에 비유하면 여러 가지 배역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섬기다가 바로 하늘나라로 간 사람도 있고 처음엔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이리저리 방황하며 온갖 고생 다 하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간 사람도 있듯이, 여러 종류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가는 사람도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가고 싶으신가요? 한편 강도처럼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신 여러 배역들 중에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제일 끝에 잠시 있는 등 마는 등 하다 사라지는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이 한편 강도는 제일 끝에 나오는 엑스트라입니다. 왜 하필 그것이 부럽나요? 주연을 하기엔 너무 거창하나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 감격에 젖어서 평생을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다 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할 것이 오죽 없어서 병원에 누워서 매일 손님만 맞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누워서 손님 맞는 사람이 부러워요? 날마다 선물 들고 찾아가는 사람이 부러워요?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교직생활한지 20년 가까이 됐을 때 하루는 전근 오신, 아주 훗칠하고 멋지게 생긴 여선생님이 이튿날 아침에 와서 얼마나 호들갑을 떠는지 몰라요. “아이고, 홍선생, 우리 동기더라고요” 하면서 어찌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무뚝뚝하게 “좋은 시절엔 쳐다보지도 않더니 다 늙어 만나서 동기면 뭐 하노?” 한마디 했습니다. 물론 농담이죠. 그 분이 가정과 선생님인데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여자아이들 중에 가장 콧대 높기로 유명한 아이들이 가정과였어요. 가정과랑은 미팅 한번 못 해봤고 아는 체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그런 동기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선생님이 전근을 와서 나를 보고 다른 선생님께 물었나봐요. 안면은 있는 것 같은데 한 두해 후배인가 싶어서 물었더니 누군가가 “아마 동기일 걸?” 하더라입니다. 그날 집에 가서 대학앨범을 뒤져보니 이름이 있더라입니다. 그 이튿날 출근하자마자 반갑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대학 시절 생각하면 제가 그 말을 안 하게 됐습니까? 한 2년을 같이 지냈는데 참 잘 지냈습니다. 동기라고 이것저것 어찌나 잘 챙겨주고 아껴주는지... 그렇게 정을 내곤 했지만 다 늙어서 만나서 뭐 하나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젊고 힘이 있을 때 한창 우리 주님 섬기기 좋은 시절은 자기 마음대로 다 보내고는 늘그막에 나와서

주님!하고 엎드리면 반가워하긴 반가워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것이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철없고 어릴 때는 병원에 누워서 선물 받고 있는 것이 부러울 수도 있지만 예수 믿고 철이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나면 평생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감격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만 생각해 보면 도무지 세상이 부럽지 않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처럼,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감격과 기쁨을 가슴 속 깊이 느끼는 사람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도무지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며 감격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만한 고난을 겪으셨는지 한시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이런 기쁨과 이런 사랑이 넘칠 때에 세상의 그 무엇이 부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해처럼, 달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